

S 칼텍스

⑦ 연합뉴스 │ < ▷ 대통령적인수위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 >





뉴스홈 | 최신기사

MLB 이치로 '동료로부터 폭행당할 뻔' <미 언론>

송고시간 | 2008-09-26 14:25



















장현구 기자

MLB 이치로 '동료로부터 폭행당할 뻔' <미 언론>

(서울=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미국프로야구 시애틀 매리너스에서 활약 중인 일본인 '안타 제조기' 스즈키 이치로(35) 가 이기적인 행동 탓에 시즌 중 동료로부터 구타당할 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은 26일 일간 '시애틀타임스'를 인용, 이치로가 시즌 중 동료로부터 구타 위협을 받았다고 전했다.



익명의 구단 제보자는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이치로를 싫어하는 선수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고 놀라워했다.

그에 따르면 존 매클라렌 전 감독과 코치진은 한 선수가 이치로 를 향해 '때려눕히겠다'고 공개 경고한 것을 엿듣고 직접 개입해 사태를 진정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시애틀은 전날까지 58승100패로 최악의 시즌을 치르고 있다. 선수 연봉으로만 1억1천700만달러라는 거액을 쏟아부었지만 구단 역사상 네 번째이자 1983년 이후 25년 만에 시즌 100패를 당하면서 큰 실망감을 안겼다.

그러면서 잠재됐던 내부 갈등도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이치 로는 2007년에도 동료와 관계가 좋지 않아 구설에 올랐고 올해는 급기야 구타 위협까지 받았다.

이치로를 싫어하는 선수들은 그가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팀 승리보다 자신의 안타에 더 집중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같은 팀 투수 J.J 푸츠는 이같은 견해에 단호하게 반대했다.

그는 일단 "그런 사건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누구나 생각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기자의 등 뒤에 숨어 신문에 이런 식으로 밝히는 건 비겁하다"며 익명의 제보자를 몰아세웠다.

푸츠는 "이치로만큼 경기를 철저히 준비하는 선수도 없다. 해마다 200만타 이상을 때리고 100득점 이상을 올린다. 그 런 선수를 갑자기 때려눕히겠다니. 그에게 할 말이 있다면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나서서 말하라"고 일갈했다.

짐 리글맨 감독도 이치로를 두둔했다. 그는 "내 기억에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면서 '난파선에는 쥐가 없다'는 격언을 인 용 "아마도 우리 팀이 너무 많이 지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다"며 혀를 찼다.

리글맨 감독은 "해마다 200안타 이상을 때리는 선수가 팀에 도움이 안된다는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 치로가 이기적이라는 사람들을 '7학년(중학교 1학년) 수준의 사고'.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로 맹비난했다.

올해까지 8년 연속 200안타를 때려 이 부문 메이저리그 타이기록을 세운 이치로는 정작 이번 사태에 대해 반응을 삼갔 다. 그러나 동료와 갈등이 재부각되면서 심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cany9900@yna.co.kr

핫뉴스 →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다섯식구 평균키 203cm...美 가족 '최장신' 기네스북 등재

'왕좌의 게임' 출연배우,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범...

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험 또...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8/09/26 14:25 송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 02:22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누가 학대했니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문 결국 우크라에

링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싱'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尹당선인 "물가상승 장기화 대비...금리인상 취약층 피해 최 소화"

尹당선인·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 어"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

댓글 많은 뉴스

집건희여사팬카페, 악성댓글 누리꾼들 경 ☑ 157 ^{찰에 고발}

2 '유퀴즈' 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 67 안 맞아"(종합)

3 두문불출이재명,이발·염색...조기등판론 속활 ☞ 56 동재개 예열?

4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 () 41 회 예정"

5 [팩트체크]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계곡살인을 검 ഈ 29 찰이 혐의 밝혀냈다?

뭐하고 놀까? ## 😛 →

유튜브채널 연압뉴스











sns **f**





테마별뉴스 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마이더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톱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광고 뉴스+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계약사/제휴문의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K-ODYSSEY) 채용 IR클럽 #홍

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

관련사이트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 등록번호 문화,나00009 | 등록일자 1980.12.29 | 발행일자 1980.12.29 | Tel. 02-398-3114

(C) [대표이사]성기홍 [편집인]조채희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외국어